

문화공간 이름, '패밀리 락 콘서트'

21일 부부·아이 동반한 2인 이상 가족 구성원 참여... 레인보우·연우네 가족·전스 패밀리 출연

문화공간 이름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패밀리락 콘서트를 오는 21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패밀리 락(樂) 콘서트는 부부, 아이를 동반한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콘서트다.

'추억쌓기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콘서트는 가족 간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요즘 작은 음악회로 가족끼리 시간을 함께하고 추억을 만들며 같은 주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이번 콘서트는 패밀리 락 콘서트라는 테마에 걸맞게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타악기, 춤 등 각 파트에서 가족들이 참여해 친근하고 흥겨운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준다.

출연진으로는 뮤지컬배우를 꿈꾸며 노래, 악기, 춤을 열심히 연습하는 딸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무대로서 무지개처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 '레인보우', 영어 동화에 빠져있는 아이를 위해 가족이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하며 준비 과정을 통해 추억을 만들고 싶은 '연우네 가족', 가족들이 흥이 많고 노래를 사랑하는 형제 '전스 패밀리'로 총 3팀이 출연한다.

이 중 '전스 패밀리'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된 소감으로 "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싶었다"며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며 또 다른 추억이 생겼다"고 전했다.

레인보우는 바다에게와 미뉴에트를 연주하며 노래와 첼로는 전하람, 반주는 채은경이 맡아 바다처럼 넓은 마음과 푸른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다. 유아한 감성이 더해져 함께 온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빌보



문화공간 이름은 여름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패밀리락 콘서트를 오는 21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드 처트 연속 7주 1위를 한 BTS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인재가 되고픈 마음으로 BTS의 Butter 노래에 맞춰 전하람이 춤을 추며 경쾌한 움직임으로 풀어 관객들의 흥미를 자아낼 예정이다.

연우네 가족은 연극을 한 편으로 연기가 자아내는 긴장감과 세심한 연출로 관객의 흥미를 자아낸 후에 작은별을 시작으로 too too no furma로 마무리 된다. 기타 정경두, 바이올린 배주형, 타악기 정연우로 풍성하고 다양한 악기 연주와 생생한 음향효과가 인상적인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극이다.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스 패밀리는 가수가 꿈인 첫 째 아들 전지성이 가수 이적의 당연한 것들을 부른다. 가수 이적의 노래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의 노래이다. 두 번째는 We are Kids(Save Myanmar) 박예분 작사와 전스 패밀리의 엄마 장상영이 작곡한 신곡이다. 미안하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며 무고하게 희생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이며 전스 패밀리가 호흡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영상 메시지와, 마지막은 둘 째 아들 전현성이 가수 이무진의 신호등을 부르며 마무리 된다. 세심하게 살려 낸 연출과 음악은 어른들을 비롯한 모든 관객이 각자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문화공간 이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패밀리 락(樂)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작년의 진행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관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름은 패밀리 락(樂) 콘서트를 계기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극적 관람형이 아닌 적극적 참여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획을 하고 있다.

문화공간 이름 대표 이윤정 이사장은 "덕분에 패밀리 락(樂) 콘서트는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3회째를 맞이했다"며 "기존의 콘서트와는 달리 여름 방학을 맞아 음악의 즐거움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완주 한 달 살기 시즌 1 결과공유 전시

예술인 창작 영감·교류·새로운 시도 예술활동 중심 마을레지던시 사업

'완주 한 달 살기 레지던시 시즌 1'이 어느새 결과공유를 앞두고 있다. 작가들은 자신만의 눈으로 담고, 몸으로 직접 느낀 3개월, 2천 시간이 조금 넘는 기간을 각각의 스타일을 담은 기록물로 선보일 예정이다.

첫 시작은 화산 예비관에서 레지던시를 진행한 '김명지, 이부성' 작가팀으로 온라인 전시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패션디자이너를 전공한 작가는 그간의 작업물 제작과정, 생각의 메모들, 그리고 결과물의 연출컷, 모델피팅컷 등을 공유하는 SNS계정을 개설했다.

고산 아트스페이스에 입주한 '김순협' 작가는 완주에 있는 동안 행복할만큼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고,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으며 기쁜 얼굴로 소식을 전했다. 고산을 관통하는 17번 국도 양쪽에 피어있는 무궁화를 그린 그림과 고산에서 시작한 모란을 그린 그림 등을 갤러리가 아닌 책방과 카페에서 만날 수 있다.

구이 별마당에 입주한 '400view팀(박서우, 이지운)'은 6월 말부터 약 5주간 '자기토템 만들기' 워크숍을 구이로 귀촌한 주민들과 진행했다. 귀촌을 통해 자연과 가까운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상징하는 자연물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각자의 토템을 만들고, 만들어진 토템은 작가가 배포용으로 복제하면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각 재료와 토템에 담긴 내용을 추적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용진 완산가에 입주한 '한지민' 작가는 완산가 주변을 탐색하며 식물을 채집하고 그 채집물을 새기는 일련의 과정을 지속한다. 이 과정을 완산가에 방문하는 이들과도 함께하며 기록하는 행위와 그 의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작가의 기록의 방법은 포토라이프를 이용해 한지에 새기는 방식으로 프레스기가 아닌 손으로 찍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렇듯 농도를 조절하거나 선택



구이 별마당에 입주한 '400view팀' 전시.

적으로 찍어낼 수 있어 자신의 의도가 더 투영될 수 있다고 한다. 방문자의 경우 2장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고, 그중 1장은 완산가에 남겨 이 기록의 흔적들은 8월 25일 작가의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의 작품과 함께 전시의 형태로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2021 완주 한 달 살기는 예술인이 머물며 창작의 영감을 받고, 교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활동이 중심이 되는 마을레지던시 사업이다.

이어 완주 한 달 살기 '시즌 2'는 시각, 문학, 공연, 다원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6인의 예술가들이 고산, 용진, 동상에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완주 한 달 살기의 소식은 재단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문화재단 예술진흥팀(063-262-3855)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립국악단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

10~12일까지 지리산 소극장서 개최

여름철 무더위를 국악으로 식혀줄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남원시는 남원시립국악단의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이 지난 5일~7일에 이어 10일~12일까지 저녁 8시 지리산 소극장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이 공연은 관객 간 거리두기, 공연장 주변 사전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되며, '소리여행'에서는 기악합주, 예기무, 살풀이, 입춤, 민요, 퓨전국악(실내악) 등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입장인원은 카카오톡 채널 '남원시립국악단'을 통한 사전예약자 50명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소리여행에서는 지난 4월 창단한 남원시립어린이국악단의 귀엽고 깜찍한 공연도 펼쳐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남원을 찾아주시는 관광객과 가족, 연인, 친구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남원시립국악단의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공연을 마련했다"면서 "낮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물레길에서 남원을 즐기시고, 밤에는 여름밤의 아름다운 국악공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은 올해로 2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에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볼거리 제공을 해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소리문화의전당서 11일 '테너 김요한 독창회'

테너 김요한이 11일 7시 30분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독창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요한은 한국종합예술종합학교를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현재 유럽에서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독일 힐데스하임 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번 독창회는 바리톤 김기훈과 피아니스트 지유경이 함께 출연해 1부와 2부로 나뉘어 연주된다.

1부는 슈베르트의 가곡 백조의 노래, 말러의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한국의 가곡,

도니체티의 작품으로, 2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 곡들로 구성됐다.

한편 테너 김요한은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이태리 비올라 콩콜라 그리스 마리아 칼라스에서 입상했고, 특히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북유럽 스텐하머 콩콜라에서 firstprize를 수상했다.

또한 독일 뮌헨 바이리엔 방송국 오케스트라, NDR(함부르크) 방송국 오케스트라, 이태리 파르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태리 베르첼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많은 협연을 했다.

이 공연은 전석 초대석으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5043-2425)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